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조 희 금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Prof. : Hee Keum, Cho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The data of 370 Mfpw in manufacturing sector in Taegu a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ares in August, 1995.

Health scale measured by Todai Health Index is composed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There are three satisfaction areas-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fpw's total health conditions are poor. Especially physical health is worse tha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is influenced by age and purpose of attaining job, while mental health is influenced by purpose of attaining job. Mfpw who get the job for family financial needs have po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level of Mfpw is lower than middle point : their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is the heigest and their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level is the lowest. Family income, purpose of attaining job and work place environment have effect on the level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Mfpw who have the higher family income, get the job by non-economic motivations and work in good work place environment show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level.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에 의한 논문임.

Ⅰ. 문제제기

1996년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러한 비율은 서비스·판매직의 36.8%에 이어 취업기혼여성의 1/3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다. 경제발전기인 70년대 생산직 여성노동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저연령의 미혼여성 노동력으로 대표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미혼여성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생산직 여성노동력은 빠르게 기혼여성노동력으로 대체되어 갔다. 그 결과 생산직은 1990년대 초반 취업기혼여성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직종이 되었다(조희금 외, 1998a).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가계의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해서 낮은 임금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또 기혼여성인 이들은 직장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전담하게 되므로 이들이 겪는 노동부담은 매우 과중하다. 그러나 과중한 노동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정이나 직장, 혹은 사회의 대처방안은 미흡하여, 생산직 기혼여성들 대부분은 수면시간을 줄이는 등 개인적인 방법에 의해 과중한 노동부담에 대처하고 있었다(조희금 외, 1998b).

이처럼 가계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취업기혼여성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하지만, 가정내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중한 노동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이나 갈등은 결국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Burke & Weir, 1976; Kessler & McRae, 1982; 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 Houston, Cates & Kelly, 1992; Lennon & Rosenfield, 1992; 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Verbrugge, 1987; Burke, 1988; 이연숙 외, 1991; 전영자, 1992), 취업한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건강 및 그 가족원의 건강은 지속적인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과 함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지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가정의 대 사회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편,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높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이들이 직장 및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비취업기혼여성이나 그들의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역할부담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직업과 가정역할 사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결혼관계 및 가정생활 만족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Gupta & Jenkins, 1985; Chung, 1988; Vannoy & Philliber, 1992; Hughes, Galinsky & Morris, 1992; Sears & Galambos, 1992; Wiegel, Berger & DelCampo, 1995; 임정빈·정혜정, 1986; 한경미,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어떤 직종의 취업기혼여성보다 노동부담이 큰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노동부담이 이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므로써, 앞으로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Wiegel 등(1995)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가족생활의 질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특성과 가족특성이 일/가족 갈등과 스트레스를 통해 가

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기제를 체계이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기혼여성의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는 이들의 개인, 가정 및 직업특성과 취업목적을 투입요소로 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부담을 과정변수로 하며,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체계의 체계활동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는 투입요소인 이들의 일반적 특성과 과정변수인 노동부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는 어떠한가?

2)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는 어떠한가?

3)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취업기혼여성의 건강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여성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산업보건학쪽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1986-87년 전국의 제조업 여성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카톨릭의대 연구팀의 연구들은(윤순옥.맹광호, 1988; 방찬호.맹광호, 1988; 기윤철.맹광호, 1990; 신의철.맹광호, 1991) 도다이 건강지표(Todai Health Index)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여성들의 여러 작업조건들이 그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조업근로자들의 요통에 관한 연구(박암,1993)에서는 생산직의 섬유제조업 기혼여성의 경우가 요통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

고경심(1989)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논할 때에는 남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관한 것과 함께 여성이라는 신체적.생리적특성을 갖는 문제를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이 사무직 여성노동자들 보다 나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백선우, 1987).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미혼여성이나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더 장시간 노동할 뿐만 아니라(천현숙, 1987; 김혜경.신현옥, 1990; 유가효외, 1991), 거기에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기혼여성 노동자의 건강은 모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혼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정혜선등(1991)은 생산직 가운데도 업종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이 나타내는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 결국 이들의 노동부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취업이 기혼여성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과(Burke & Weir, 1976; Kessler & McRae, 1982; 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 Houston, Cates & Kelly, 1992; Lennon & Rosenfield, 1992), 주부의 취업을 다양한 역할수행 및 역할갈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러한 역할갈등이 주부의 심리적인 복지나 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Verbrugge, 1987; Burke, 1988; 이연숙 외, 1991; 전영자, 1992). 그러나 주부의 취업 및 취업에 따른 다양한 역할수행에서 오는 갈등이 미치는 영향은, 주로 주부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심리적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많으며, 취업한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이나 갈등이 기혼여성의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Verbrugge, 1987; Burke, 1988; 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

Kessler 와 McRae(1982)는 부인의 취업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높은 소득을 가진 취업기혼여성은 신체적인 문제가 없고, 또 취업주부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정신건강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고용이 여성의 정신적 · 신체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 Repetti 등(1989)은 취업은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특성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즉, 기혼 보다는 미혼여성이, 기혼일 경우는 남편의 가사분담이 많을수록, 그리고 직업에 대해 좋아하는 태도를 가질 수록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특성 가운데는 직업지위가 낮을 수록, 작업환경이 나쁠 수록, 그리고 직업의 압박요인이 클 수록 건강의 위험을 증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사이의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에서(Houston, Cates & Kelly, 1992), 취업주부는 감독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크면 긴장이 적었고 남편이나 친척/친구로부터의 지원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업주부의 정신건강이나 복지에 대한 연구는 일과 가족상황에 대한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Lennon & Rosenfield, 1992).

또, 부인은 취업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임금노동자, 부인, 어머니의 역할수행 경험에서 오는 질적인 측면이 심리적인 복지나 근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취업기혼여성은 과중한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인 역할책임 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역할부담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Verbrugge, 1987) 한 연구가 있다. 취업에 따른 직장 및 가정의 특성과 일 및 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원이 일과 가족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심리적인 근심이나 작업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감등 결과적인 변수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urke, 1988; 전영자, 1992). 또 18세 이하의 자녀는 취업기혼여성의 정신건강이나 가족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Lennon & Rosenfield, 1992; Weigel, Weigel, Berger & DelCampo, 1995)).

즉 취업기혼여성의 건강은 가정 및 직장관련 변수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변수와 일/가정 갈등에서 오는 노동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비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어느정도인지,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가정주부와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일과 생활만족도 사이에는 관계가 있으며(Ferre, 1984),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신의 만족을 증가시키나 남편의 만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Burke, 1976)가 있는 반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고, 남편보다 부인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임정빈 외, 1989)도 있다. 또 취업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김용희 외, 1987)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위영역을 포함 시키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히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만을 측정하거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경우는 단일척도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혼만족도안에 직업만족도 관련 항목을 넣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임정빈 외, 198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영역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만족이나 가정생활만족을 파악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 이에 한경미(1995)는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가정생활만족뿐 아니라 직장생활만족과 여가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어서, 전업주부는 경제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 영역이 삶의 질에 중요한 반면, 취업주부는 가족생활, 일영역, 주거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채정숙 외, 1997). 이처럼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측정은 전업주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과 가정생활영역의 양립에 관한 것이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일/가족 갈등 즉 역할갈등이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혹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혼여성 개인을 중심체계로 할 때 이들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및 직장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취업기혼여성의 취업배경과 이들이 겪는 노동부담, 그리고 이들이 노동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안에 대해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조희금 외, 1998a;1998b)에서 제시된 바 있다.

취업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정관련변수들 가운데 자녀수, 가사조력자의 유무, 남편의 지지도 등(임정빈 외, 1986; 한경미, 1995; 김경신 외, 1996)과 어머니와의 동거이유(양명숙 외, 1997)를 들고 있다. 한편 김용희 등(1987)은 가족관련변수는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별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관련변수들 가운데서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나 일의 자율성 등이다(임정빈 외, 1986; 김용희 등, 1987; 임정빈 외, 1989; 한경미, 1995). 이 가운데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취업한 경우보다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한 경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일영역과 직업영역의 양립에서 오는 역할갈등 혹은 노동부담이다(Burke, 1988; Chung, 1988; Houston, Cates & Kelly, 1992; Hughes, Galinsky & Morris, 1992; Sears & Galambos, 1992; Wiegel, Berger & DelCampo, 1995; 임정빈·정혜정, 1986; 한경미, 1995, 김경신 외, 1996). 그러므로 Wiegel 등(1995)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정이나 직업관련 특성들이 직접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러한 특성들이 일/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체계이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Burke(1988)는 일/가정갈등이 직업만족을 낮게하고 정신병리적인 증후를 크게 한다고 하였다. Sears 등(1992)은 취업여성의 노동과중, 낮은보상, 낮은 노동지위가 노동에서의 스트레스를 통해 결혼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으며, Hughes 등(1992)은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심리적 전이가 결혼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여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정빈과 정혜정(1986)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고, 취업주부의 생활만족을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한경미(1995)는 실제 할애하는 시간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각하는 시간갈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역시 일반적 특성변수와 역할갈등 혹은 노동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혼여성으로, 총 445부를 배부하여 39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8%), 그 가운데 부실 기재된 22부를 제외한 37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먼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수정작업을 거쳐 1995년 8월 5일 부터 8월 14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먼저 연구자가 대상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기입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다시 임원들이 대상자에게 기입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척도,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관한 척도 및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일본인 Aoki 등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만든 Todai Health Index(1977)를 김윤신 등이 번안하여 척도화한 THI 건강척도(도다이 건강척도) 가운데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14개 문항과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13개 문항 그리고 유병지표 및 주관적인 판단을 묻는 문항 등 3문항을 합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그렇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3점을 주는 3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다.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의 α값이 .88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누어졌다.

생활만족도는 자신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총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4개 문항에 대한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값이 .79였다. 이들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 직장생활만족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70)

변 수	항 목	빈도(%)	변 수	항 목	빈 도(%)
본인 연령	-29세	25(7.1)	본인의 소득	35- 50만원	80(22.6)
	30-39세	93(26.6)		51- 60만원	114(32.2)
	40-49세	180(51.4)		61- 70만원	92(26.0)
	50-59세	52(14.9)		71-150만원	68(19.2)
평균	42.3세		평균	63.4만원	
자녀의 지지도	적극 찬성	18(5.2)	남편의 지지도	적극 찬성	18(5.3)
	찬성	46(13.3)		찬성	105(30.8)
	보통	139(40.1)		보통	157(46.0)
	반대	116(33.4)		반대	56(16.4)
	적극 반대	128(8.1		적극 반대	5(1.5)
취업목적	생활비 마련	141(38.2)	가계 소득	40-100만원	64(19.0)
	집마련	67(18.2)		101-150만원	100(29.7)
	자녀교육비	92(24.9)		151-200만원	130(38.6)
	빚을 갚기위해	5(1.4)		201-500만원	43(12.8)
	일하는게 당연	30(8.1)	평균	163.4만원	
	시간을 활용	19(5.1)	잔업여부	했다	247(67.9)
	그냥 좋아서	10(2.7)		안했다	117(31.6
	기타(노후대책)	5(1.4)			
평균 1일 근무시간	- 8시간	196(53.3)	작업환경 (실내온도 · 조명 · 환기)	아주나쁘다	53(14.5)
	8-10시간	51(13.8)		나쁘다	111(30.3)
	10-12시간	106(28.8)		보통이다	148(40.4)
	12시간 이상	17(4.1)		좋다	44(12.0)
				매우 좋다	10(2.7)
평균	9시간 48분		근무형태	주간 근무	288(77.8)
				1일 2교대	12(3.2)
				1일 3교대	55(14.9)
				기타	15(4.1)

* 무응답의 처리로 변수별 빈도에 차이가 있음

Ⅳ.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상태

생산직 기혼여성들 자신이 평가하는 건강상태를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누어서 그 실태를 살펴본다.

(1) 생산직 기혼여성의 신체적 건강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증상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자신들이 지각하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신체적인 건강지표는 평균 1.76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서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는 것이며, 그 다음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몸에 열이 있다'는 한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보통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이들의 신체적인 건강이 상당히 심각함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백동기 등(1993)은 섬유제조업 여성근로자들의 우측어깨와 우측손에서 나타난 유병률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다고 하였으며, 또 박암(1993)은 제조업 종사자들 가운데 특히 기혼이며, 작업자세가 불편한 경우에 요통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은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함께 더우기 기혼여성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경심, 1989). 또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일은 섬세함이나 꼼꼼함을 요구하는 미숙련의 단순반복적인 작업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체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질병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정혜선 외, 1991). 사무직의 여성근로자와 비교할 때 생산직의 여성근로자들이 일의 단순성, 반복성에서 오는 증상의 호소가 높고 전반적인 증상이 사무직에 비해 높아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백선우, 1987) 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생산직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2〉 증상으로 본 생산직 기혼여성의 신체적인 건강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눈이 쓰리고 아프다	1.81	0.817
소화가 안된다	1.79	0.796
입안이 부르튼다	1.69	0.819
현기증이 있다	1.79	0.794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	1.35	0.612
허리가 아프다	1.47	0.715
몸에 열이 있다	2.20	0.811
등이나 등뼈가 아프다	1.98	0.888
온몸의 구석구석이 아프다	1.60	0.752
얼굴이화끈거리고 머리가 아프다	1.85	0.824
전체적인 평균	1.76	0.491

* 1-3점 리커트척도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낮을 수록 그러한 증상이 많은 것을 나타냄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신체적 건강증상은 종사하는 업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는데(정혜선, 1991), 전자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눈이 침침한 것'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섬유업종은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을, 기계금속업종은 '기침·가래·숨이 가쁜 것'을 그리고 신발고무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머리가 아픈 것'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한다. 이는 각 업종의 작업특성이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산직 기혼여성의 정신적 건강

생산직 기혼여성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증상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정신적인 건강지표의 평균은 2.10으로 신체적인 건강에 비해 상태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인 건강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피곤하다'(1.59)거나 '걱정이 된다'(1.74, 1.77)는 항목의 점수가 보통보다 낮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통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취업은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3〉 증상으로 본 생산직 기혼여성의 정신적인 건강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1.59	0.716
낯선 장소에서는 당황한다	2.06	0.746
기분에 쉽게 좌우된다	2.08	0.727
하찮은 일도 걱정이 된다	1.77	0.755
높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떨린다	2.30	0.735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일이 어렵다	2.26	0.748
인생이 허전하고 희망이 없다	2.36	0.717
재미 없고 기분이 우울하다	2.45	0.650
열등감을 느낀다	2.32	0.731
걱정을 잘 하는 편이다	1.74	0.746
초조하고 불안한 경우가 있다	2.08	0.825
신경질이 잘 난다	1.90	0.783
항상 쫓기는 기분이다	2.44	0.725
전체적인 평균	2.10	0..438

* 1-3점 리커트척도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낮을 수록 그러한 증상이 많은 것을 나타냄

는 연구결과(Repetti 등, 1989)들과 일부 일치한다고 하겠다.

신체적 증상의 호소와 정신적 증상의 호소를 비교해 볼 때, 생산직 노동의 특성인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서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유지가 일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신체적인 건강과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기혼여성의 건강은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 그리고 직장관련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Lennon 등(1992)은 직업 및 가족생활의 조건이 취업과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개인 및 가정관련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적인 건강은 연령과 취업목적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건강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 했을 때 취업목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Kessler & McRae, 1982; Repetti, Matthews, & Waldron, 1989; 박은옥, 1995) 취업이 기혼여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취업한 기혼여성의 건강은 취업여부의 영향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종에 따른 분석과 취업목적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신체적인 건강은 나이가 젊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좋았으며, 정신적인 건강도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취업 곧 비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좋았다.

〈표 4〉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들에 대한 중회귀분석

(계수는 β값임)

변 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전체 건강상태
연 령	-.13*	.04	-.04
본인소득	-.05	-.05	-.06
가계소득	-.02	.03	.01
가족의지지도	.05	.03	.05
취업목적 #1	.23**	.28***	.29***
근무형태 #2	-.02	-.04	-.03
잔업여부 #3	.09	.12	.12
작업환경	.09	.10	.11
상 수 항	20.3	23.5	43.8
F	3.3**	3.9***	4.6***
R^2	.10	.11	.13

* P〈.05 ** P〈.01 *** P〈.001
#1 취업목적 가변수(가계의 필요=0)
#2 근무형태 가변수(주간근무=0)
#3 잔업여부 가변수 (잔업한다=0)

한편, 생산직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노동부담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에서 보면, 신체적인 건강은 노동부담을 많이 느낄 때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생활부담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 했을 때 독립적인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개인적인 부담 및 직장생활 부담이 클 수록

〈표 5〉 노동부담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회귀분석

(계수는 β값임)

변 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전체 건강상태
개인생활부담	-.17*	-.12	-.16*
가정생활부담	.04	-.03	.02
직장생활부담	-.13*	-.15*	-.16*
사회생활부담	-.27***	-.22*	-.28***
상 수 항	27.0	38.3	65.2
F	12.1***	10.9***	15.7***
R^2	.15	.14	.19

* P〈.05 ** P〈.01 *** P〈.001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의 부담이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건강은 주관적인 노동부담 정도를 통해 15%가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책임과 역할부담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Verbrugge(1987)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인 역할부담이 객관적인 측면의 역할책임 보다 신체적인 건강을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건강 역시 노동부담이 클수록 좋지 않았다. 특히 사회생활부담과 직장생활에서의 부담이 클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과 가정에서의 장시간 노동으로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담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정신적인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인 건강은 주관적인 노동부담의 회귀식에 의해 14%가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본연구에서 가정생활부담은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생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부역할갈등 및 부모역할갈등이 직업역할갈등 보다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전영자, 1992)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은 노동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ouston 등(1992)이 주부에게 있어서 양적인 역할과중은 취업에 관계없이 그들의 정신적 긴장이나 신체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담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생활부담은 전체적으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회생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응답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개인적인 부담이나 가정생활부담 보다 직장생활부담이 클 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기혼여성이 느끼는 주관적인 노동부담은 직장생활에서의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서의 부담이 가정생활부담 보다 건강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결근이유 가운데 건강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유가효 외, 1991) 것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변수 및 노동부담 변수을 독립변수로 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목적과 연령이었다. 즉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신체적인 건강은 연령이 들고 가계의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건강이 나쁜것으로 나타나서 노동부담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사라졌다. 정신적 건강 역시 취업목적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므로 생산직 기혼여성의 전체 건강상태는 취업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이들의 건강이 기혼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1) 생활만족도 실태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표 6〉에서 보면, 전체적인 생활만족 수준은 2.98로 보통보다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만족도의 영역별로는 개인생활만족이 2.50으로 가장 낮으며, 직장생활만족은 3.08,

가정생활만족은 3.13으로 나타나서,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개인생활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가운데 가정생활만족도가 직업만족도나 여가생활만족도보다 높다고 한 연구결과(한경미, 199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이들의 노동부담을 조사한 연구에서(조희금, 1998b) 개인생활영역의 노동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고 만족도도 낮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6〉 생산직 기혼여성이 느끼는 생활만족도

만족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개인생활만족	2.50	0.61
가정생활만족	3.13	0.71
직장생활만족	3.08	0.74
전체 생활만족	2.98	0.53

* 1-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다

2)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산직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및 가정관련변수와 직업관련 변수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은 개인 및 가족관련 변수 가운데 가계소득과 직업관련변수 가운데 취업목적,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다.

개인생활만족도는 가계소득이 높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장의 작업환경이 좋을수록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한 경우 개인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변수는 개인생활만족의 21%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목적과 가계소득, 그리고 작업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직장생활만족도는 직장의 작업환경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이 매우컸다(β=.35). 특히 생산직 기혼여성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은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도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희금, 1998a).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환경이 직장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작업환경변수는 전체 생활만족도 및 모든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작업환경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가계소득, 취업목적과 작업환경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소득이 높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해서 직장의 작업환경이 좋은 곳에서

〈표 7〉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들의 중회귀분석

(계수는 β값임)

변 수	개인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	직장생활만족	전체생활만족
가계소득	.17**	.23*	.04	.19***
취업목적#1	.16**	.21***	.10	.21***
작업환경	.20**	.16**	.35***	.31***
근무시간	-.26*	-.05	-.01	-.08
상수항	8.07	15.17	11.15	34.39
F 값	18.92***	14.40***	12.24***	22.24***
R^2	.21	.17	.15	.24

* P〈.05 ** P〈.01 *** P〈.001

#1 취업목적 가변수(가계의 필요=0)

일하고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취업기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정관련변수보다 직장생활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이 더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이들 변수에 의해 24%가 설명되고 있다.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취업동기가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경제적인 동기로 취업한 경우에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는 많은 연구결과(임정빈 외, 1986,1989; 한경미,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직 기혼여성이 느끼는 노동부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 〈표 8〉에 나타나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할갈등이 결혼만족이나 직업만족 및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Burke, 1988; Chung, 1988; Houston, Cates & Kelly, 1992; Hughes, Galinsky & Morris, 1992; Sears & Galambos, 1992; Wiegel, Berger & DelCampo, 1995; 임정빈 · 정혜정, 1986; 한경미, 1995, 김경신 외, 1996). 특히 각 영역별 생활만족도는 각 영역별 부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만족은 모든 영역의 노동부담이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특히 사회생활 부담의 영향력이 컸다. 이들 노동부담감은 개인생활만족의 28%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노동부담에 의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R^2=.06), 사회생활부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이들이 느끼는 노동부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은 직장생활부담에 의해서만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있었다. 즉 직장생활만족도는 개인적인 부담이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부담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은 가정생활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서, 직장생활 부담이 개인 및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개인 및 가정생활부담이 직장생활만족과는 관계가 없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조희금, 1998b).

생산직 기혼여성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직장생활 부담 및 사회생활 부담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있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았으며, 전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노동부담의 설명력은 16.1%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체계적 접근으로 볼 때,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및 직장관련 변수들을 투입요소로 하고 직장과 가정생활 영역에서 겪는 역할갈등 및 노동부담을 과정변수로 한 체계활동의 결과이

〈표 8 〉 노동부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회귀분석

(계수는 β값임)

변 수	개인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	직장생활만족	전체생활만족
개인적인 부담	-.17*	-.10	-.03	-.12
가정생활 부담	-.16*	-.02	-.03	-.07
직장생활 부담	-.13*	-.04	-.28***	-.20***
사회생활 부담	-.25***	-.16*	-.03	-.17**
상수항	12.82	24.00	20.36	57.17
F값	24.78***	4.02**	7.29***	12.41***
R^2	.28	.06	.10	.16

* P〈.05 ** P〈.01 *** P〈.001

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인 가정, 직장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생태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한 기혼여성 가운데 1/3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긴 노동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편인데, 특히 신체적적인 건강은 보통 이하로 정신적인 건강보다 나빴다. 신체적인 증상 가운데는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했으며, 정신적인 건강에서는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 및 직장관련 변수와 노동부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이들의 전체적인 건강은 가계의 필요 때문에 취업한 경우에 나빴다. 그러나 신체적인 건강은 연령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높고, 취업동기가 경제적인 경우에 좋지 않았다. 또 노동부담 가운데는 가정생활부담을 제외한 개인생활부담, 직장생활부담, 그리고 사회생활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건강이 좋지 않았다.

셋째, 생산직 기혼여성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직장생활만족, 개인생활만족 순으로 낮았다.

넷째, 전체적인 생활만족은 가계소득, 취업목적과 작업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계소득이 높고 취업목적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직장의 작업환경이 좋을록 높았다. 개인생활만족은 가계소득이 높고, 직장의 작업환경이 좋고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높았으며, 가정생활만족은 가계소득이 높고 비경제적인 취업동기를 가질 때, 직장생활만족은 직장의 작업환경이 좋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 노동부담 가운데는 직장생활부담과 사회생활부담의 영향력이 커서,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전체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측면에서 강구해야 한다.

둘째,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취업목적이다. 취업목적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 때 건강이나 생활만족도가 좋았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성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직업교육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노동부담은 이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부담 가운데 사회생활부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고려한 사회적인 제도 및 시설의 배려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회생활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생산직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자의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기혼여성이 생산직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가계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생존전략이고 사회의 생산직 노동력 수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노동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정, 직장 및 사회의 대처방안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조희금 외, 1998a 1998b). 이런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들의 노동력 마모로

이어지고 또 생산직 기혼여성 가정의 삶의 질적인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취업기혼여성을 위해서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경심(1989). "한국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 여성3 , 『창작과 비평사』, pp.50-68.
2) 기윤철 · 맹광호(1990). "도다이(Todai Health Index)건강지수로 본 한국제조업 여성근로자들의 신체 및 정신증상 호소와 작업관련 요인들간의 연관성", 『가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제43권 제1호, pp.73-82.
3) 김경신. 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제14권 2호, 1-18.
4) 김용희. 제미경(1987). "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기혼.미혼여성의 비교-",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제5권 2호, 11-27.
5) 김혜경 · 신현옥(1990).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자의 상태와 문제", 『여성과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282-318.
6) 박 암(1993).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의 요통유병률과 요인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제26권 제1호, pp.37-48.
7) 박은옥(1995). "취업과 결혼상태가 남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6권 제1호, pp.84-97.
8) 방찬호 · 맹광호(1988).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41권 제2호, pp. 527-544.
9) 백선우(1987). "우리나라 일부 생산직 및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건강상태 비교조사-THI건강 조사표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신의철 · 맹광호(1991). "우리나라 여성 주요 제조업 근로자들의 교대작업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예방의학회지』 제24권 제3호, pp.279-286.
11) 양명숙 · 하경란(1997). "모(시 · 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4호, 301-313.
12) 유가효 · 박혜인 · 조희금 · 박충선(1991).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29-3, pp.227-246.
13) 윤순옥 · 맹광호(1988). "유형별 제조업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수준 비교와 건강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분석",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제41권 제4호, pp.1093-1108.
14)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15) 임정빈 ·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1호, pp.71-93.
16) 임정빈.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117-132.
17)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정혜선 · 이건정 · 박기남(1991).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여성과 사회』 제2 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76-115.
19) 조희금 · 이연숙(1998a).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참여배경과 노동부담",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2호, 161-173.
20) 조희금 · 이연숙(1998b).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6권 1호, 125-139.
12) 채정숙 · 조희금 · 박충선 · 정영숙,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4호, 243-255.
13) 천현숙(1987). "공단지역 기혼여성노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47-57.

15)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 여성통계연보』.

16) Barnett, R.C. & Baruch G.K.(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9-1, pp.135-145.

17) Baruch, G.k. & Barnett R.(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3, pp.578-585.

18) Burke, R.J. & Weir T.(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snd, Wife and Pair Satisfation and Performa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pp.279-287.

19) Burke, R.J.(1988). "some Antcedents of Work-Family Conflict", Goldsmith, E.B.,(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287-302.

20) Chung, yunsuk Lee(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Iowa State Uni., Dissertation.

21) Ferree, Myra Marx.(1984). "Class, Housework, and Happiness: Women's Work and Life Satisfaction", *Sex Roles*, Vol.11 No.11/12, pp.1057-1073.

22) Houston, B.K., Cates D.S. & Kelly K.E.(1992). "Job Stress, Psychosocial Strain,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in Women Employed Full-Time Outside the Home and Homemakers", *Women & Health*, Vol.19-1, pp.1-26.

23) Hughes, Dlane, Ellen Galinsky & Anne Morris (1992).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Quality: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pp. 31-42.

24) Kessler, R.C. & McRae Jr.,J.A(1982). "The Effect of Womens' Emo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7(April), pp.216-227.

25) Lennon, M.C. & Rosenfield S(1992). "Women and Mental Health: The Interaction of Job and Family Contion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3(December), pp.316-327.

26) Repetti, R.L., Matthews, K.A., & Waldron, I (1989).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 Effects of Paid Employment on Wom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 ", *American Psychologist*, Vol. 44-11, pp.1394-1401.

27) Sears, Heather A. & Nancy L. Galambos(1992). "Women's Work Conditions and Marital Adjustment in Two-Earner Couples: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4, pp. 789-797.

28) Vannoy, Dana & William W. Philliber(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4, pp. 387-398.

29) Verbrugge, Lois M(1987). "Role Responsibilities, Role Burdens, and Physical Health", Crosby, Faye J.,(ed.), *Spouse, Parent, Worker-on Gender and Multiple Roles-*, Yale University, pp.154-166.

30) Weigel, Daniel J., Randy R. Weigel, Peggy S. Berger & Robert DelCampo(1995). "Work-Family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Life: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24 No.1, pp.5-28.